

1930年代 末期의 散文精神과 글쓰기의 類型

金 東 煥*

1. 序 論

글을 쓴다는 일은 인간의 정신 활동의 한 양태로서 다양한 국면에서 접근해 갈 수 있다. 왜 쓰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질문이 글쓰기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글쓰기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고정되지 않고 그 대답을 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 자체가 개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삶의 한 부분인 정신 활동도 개별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닌 여러 본능 중의 하나인 表現 本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글쓰기도 당연히 個別性을 지닌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문학 작품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견해에 대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¹⁾는 논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글쓰기를 개별성의 발현으로 보기에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懷疑論的 견해는 그동안 인류가 발전시켜 온 인문학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된다. 철학이나 신학을

* 서울대 강사

1) Gerard Granel, "Who Comes after the Subject ?" Eduardo Cadava etc.(ed), *Who Comes after the Subject ?* (Routledge, 1991), pp.148-156

비롯한 인문학은 모두 인간의 정신활동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자연 과학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근대 이후의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 오히려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그 주체인 인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²⁾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의 근본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 활동을 보편적인 법칙과 원리로 설명해 내는 일을 부정하는 견해들은 발전적일 수 없다.

인문학의 여러 분야 중 언어학과 문학은 근대 이후의 인문학이 지향해 온 바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근대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인문학이 인간의 삶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염두에 둔 까닭이다. 문명의 위기를 언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新批評의 선언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신비평이 언어를 문학 연구의 거점으로 삼고자 한 것은 언어가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격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성의 복원력을 읽어 낸 데 있었다. 그러나 신비평의 전개과정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그에 따라 그들이 내건 선명한 기치가 점차 퇴색해 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언어학과 문학의 통합적 운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³⁾ 하지만 구체적 이론의 전개과정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출발점은 인문학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여기에서 인문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國語教育學의 學問的 正體性과 그 유용성의 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이라는 범주가 지니는 의미와 함께 언어학과 문학을 동시에 포괄하는 국어교육학은 교육학, 언어학, 문학이라는 개별 영역과의 차별성을 입증해 나가는 맥락에서가 아닌

2) 이태수, 「학문 체계 안에서 인문학의 위치에 대한 고찰」, 소광회 외, 『현대의 학문체계』, 민음사, 1994.

3) 이상 신비평에 대한 내용은 다음 참조.

Art Berman, *From the New Criticism to Deconstruction* (Univ. of Illinois Press, 1988), Ch. 2.

인문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독자적 성격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학적 체계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시도한 한 논의⁴⁾는 방향성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논의의 핵심은 국어교육학의 자료와 대상은 國語活動이며, 국어활동을 지배하는 원리는 使用原理와 文化原理의 두 가지임을 설정한 데 있다.

국어교육학의 대상으로 국어활동을 설정하고 국어활동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로 사용원리와 문화원리를 설정함으로써 인문학으로서의 국어교육학은 정체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설정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성을 확보해 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체적인 구도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세부구조를 얼마나 精緻하게 체계화해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원리에 해당하는 범주는 더욱 깊이있는 논의가 요청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문화라는 현상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생성과 발전의 제 과정에 쉽게 체계화해 낼 수 없는 다양한 변수들이 개재해 있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에서는 문화원리를 屬性과 樣式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⁵⁾ 그런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 문화원리를 설명해 낼 때 문화현상의 중요한 한 국면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문화가 作用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고려가 생략되어 있다는 의문이 그것이다. 문화원리를 속성과 양식의 측면에서만 파악할 때, 문화 자체는 고정적인 현상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의 삶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의 발현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각 개인이나 집단은 한 시대의 문화에 대해

4) 李庸周, 丘仁煥, 金恩典, 朴甲洙, 李相翊, 金大幸, 尹希苑, 「國語教育學 研究와 教育의 構造」, 『師大論叢』 46輯, 1993. 6

5) 앞의 글, pp.18-20

어떤 태도로 임하게 되는지를 포착해 내어 원리화해야 하리라 본다.

한 문화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자동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나 장치를 통해 '구조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과 집단은 당대적 문화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한다. 형성되어 있는 현상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작용태로서 문화를 보는 입장은 문화와 문화향유자간의 相互作用을 중시한다.⁶⁾ 이 점은 국어교육학이 문화원리를 설명해 내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국어활동의 주체로서의 문화향유자들이 능동적으로 이 교육의 구조 내에 편입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셈이다. 본고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문화의 작용 원리에 관한 것이다. 문화를 작용태로 보는 관점에 서서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문화 행위를 이끌어 내는가 하는 점을 실제적인 예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문화의 작용 원리의 하나로 특정 시대의 精神史 또는 意識史를 문제 삼는 견해들을 논거로 삼고자 한다. 이 견해들은 특히 예술가와 문화와의 상관성을 깊이있게 다루고 있는데, 한 시대의 정신사나 의식사를 예리하게 감지해 내는 감수성과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개인으로서의 예술가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중요한 원리로 상정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선택하는 창조 행위는 문화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예술활동은 문화의 형성 과정과 역사적 발전에 대응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⁷⁾ 본고는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 시대의 문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글쓰기의 양상을 통해 문화가 작용하는 원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 후반의 산문양식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당시의 특징적인 글쓰기가 당대의 문화에 대한 문인들의 정신사적 또는 의식사적 대응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930년대를 선택한 이유는

6) 文化生態論을 비롯한 문화의 力動的 성격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이와 같은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7) R.Williams (나영균 역), 『文化와 社會』(이화여대 출판부, 1988) pp.12-19
Ken Hirschkop (ed), *Bakhtin and Cultural Theory*(Manchester Univ. Press, 1989), pp. 1-38

우리 문학사에서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정신사적 공백기나 轉形期로 설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문인들의 대응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 민족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문화가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 문화에 대한 창조적 주체들의 대응이 선명하게 부각되기 마련이다. 이 검토 과정을 통해 문화가 작용하는 원리를 파악해 낼 수 있고 나아가 문화 원리가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한 예증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그 예증은 국어활동의 실현행위의 두 국면인 理解와 表現⁸⁾ 중 표현의 한 양상인 文字行爲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원리 마련과도 관련되리라 본다. 그와 함께 그동안 문예지에 실려 있으나 비문학적인 글이라는 이유로 해서 어느 영역으로부터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일련의 글들이 국어교육학의 영역에 편입되어 자료로서 또는 원리 제공의 단서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文章> · <人文評論>誌의 散文精神

한국문학사에서 1930년대 후반은 흔히 전형기라 불리며 “‘過渡期’ ‘試鍊期’ ‘文學思潮의 流失時代’ 등으로 불릴 만큼 문단에 위기의식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다양하게 전개된 시기”이다.⁹⁾ 그런데 이러한 진술 속에는 문학 현상을 매우 개별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내재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문화 현상의 한 범주로서의 문학에 대한 접근에는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가 뒤따른다. 한 작품의 창조주체를 작가 일개인으로만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작품은 우연적인 것으로 남게 되고 어느 정도 기발하면서도 재능이 있는 코멘트 이상의 차원을 넘

8) 李庸周 외, 앞의 글, pp.24-26

9)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 現代』編(白楊堂, 1947), pp.254 ff

어서기 힘들다. 따라서 어떤 작품의 객관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속한 사회집단의 총체적 의식과 작품을 결부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즉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은 창조적 집단이 자기가 속한 사회 및 그 사회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에서 배태된 문제에 일관된 반응을 보이려는 경향의 구조화 과정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⁰⁾ 위에서 살펴 본 진술은 지금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 문학사를 서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후반기에서 해방 직전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시도해 문학사적으로 공백에 가까운 기간으로 남겨 놓는 식의 서술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현상을 한 개인의 의식과 관련된 측면에 국한하기보다는 집단의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는 문학 현상을 문화 원리와 관련시켜 파악해야 하는 학적 체계에서 문학사를 다룰 때 취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1930년대 후반의 문학 현상을 문화의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할 때, 개인이 아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응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그 주체를 <文章>과 <人文評論>이라는 두 문예지를 그 주체로 설정하고자 한다.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동인지 등의 문예지가 발간되어 집단적인 문학운동을 해 온 점을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예지들은 대체적으로 그 참여자들이 동질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 주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문예지들은 개인들이 하나의 문화 현상에 대응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문화가 개인들에게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문예지에서 드러나는 정신이나 의식은 당대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 내는 일은 곧바로 당대의 문학 현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와 직결된다. 특히 이 시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철

10) L. Goldman(정과리, 송기형 역), 『숨은 신』(인동, 1980), pp.23-24

저한 강압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 자체가 말살의 위기에 처해 있던 만큼 이들이 보여주는 대응양상은 정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이들 문예지들이 보여 주고 있는 당대의 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의식을 산문정신이라는 개념¹¹⁾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두 문예지의 주체들은 당대의 문화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자 행위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우선 두 문예지의 산문정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古典精神으로의 回歸와 文章論 : <文章>

<文章>지는 1939년 2월에 창간호를 낸 문예지로 일제 말기에 우리 문단을 유지시켜 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1년 4월까지 모두 25호를 발간된 <문장>은 그 편집 방침에서부터 민족 정신 및 한국적 미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문장>지는 그들이 내세운 우리의 정신 및 미학에 대한 관심이 실천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창간호의 권두언에 제시되어 있다.

“日露戰時에는 戰爭이 끝나도록 研究室에만 묻혀 있다가 戰勝號外를 보고서야 비로소 조국에 戰亂이 있었음을 안 學者가 있었다 하거니와 學者이니, 眞理를 試驗管 속에서만 찾는 학자이니 容或無怪, 文筆人은 이러할 수 있는 學者와는 根本적으로 別個의 文化人인 것이다. 우리 문필인의 試驗管은 研究室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發見하고, 指摘하고 宣揚할 對象은 民衆 속에 있고, 全國家의인 事態에 있고 時代라거나 世紀란 彪大한 局面에 있는 것이다.”¹²⁾

11)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80.

12) 『時局과 文筆人』, 『文章』 제1집, 1939.2

이 진술에서는 문인을 학자와는 다른 문화인이며 문화인은 시대나 사회에 대한 실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러한 진술은 당대 문인들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지극한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문장>지의 중심 인물들이 이태준, 정지용, 이병기 등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로 여겨진다. 이들 세 문인들은 문학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자족적인 실체로서의 문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문학 활동을 해 온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 문인들이다. 그들이 주도하는 <문장>지가 하나의 선언으로 문화인의 대사회적 역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당대 상황의 지배적 경향과 이들의 지향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즉 문화의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장>지의 주요 인물들이 이러한 문화의 위기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古典精神이었다. 즉, 당대 문화의 위기가 전통적인 사고와 가치질서를 부정함으로써 비롯된 공백의 상태에서 온 것인 만큼 전통을 회복하는 길은 고전정신으로 돌아감으로써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당대의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거부이다. 즉, 신체제라는 새로운 질서를 강제하고 있는 사회의 지배적 경향에 대한 의식적 차원의 거부인 셈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서 고전정신으로의 회귀는 과연 가능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이 추구한 고전정신이란 가람 이병기의 문학세계의 핵심인 선비精神 또는 藝道로 대표된다.¹³⁾ 그렇지만 이미 조선의 사회는 양반사회의 기반이 붕괴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선비정신이나 예도로 돌아간다는 함은 문화의 위기 의식의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시적인 세계' 즉 논리가 아닌 감성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의식의 발현이다. 이병기와 그의 추천을 받은 시인들이 「蘭草」로 대표되는 생리적 직관의 시세계로 나아가서 그 안에 침잠해 들어간 점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극복의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 경우가 이태준으로 그는 산문정신을 통해 이 문제에

13)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일지사, 1978), pp.161-169

접근해 가고 있다.

이태준의 산문정신은 <문장>지에 연재된 「文章講話」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 「문장강화」는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론으로 <문장>지14의 의욕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文章講話」를 통해 이태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연재물 1회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朝鮮서는 散文에서는 이 修辭를 理論한 바가 극히 적었다. 적으면서도 過去의 문장을 읽어 보면 修辭觀念에 缺如한 文章이 별로 없다. 批判이 없이 맹목적으로 漢文體를 모방하여 修辭로 인해 發達이 아니라 도리어 中毒에 빠지고 말았다.

金風이 瀟飈하고 玉露凋傷한대 滿山紅樹가 猶勝二月花辰이라
遠上白雲石逕하야 共詠停車坐愛楓林晚의句가 如何오.

친구에게 단풍구경을 가자고 청하는 편지다. 그런데 한마디로 자기네 말이나 感情은 없다. 玉露凋傷은 杜詩 <玉露凋傷楓樹林>에서, 猶勝二月花辰은 唐詩 <霜葉紅於二月花>에서, 遠上白雲石逕이란 <遠上寒山石逕斜 白雲深處有人家>에서, 停車坐愛楓林晚이란 唐詩 <停車坐愛楓林晚>에서 그대로, 모두 古典에서 따다 連絡만 시킨 것 뿐이다. 제 글보다 典故에서 널리 남의 글을 잘 따라 채우는 것이 過去 文章作法의 중요한 一門이었다. (中略)

過去 우리 文學에 좋은 作品이 없었던 것은 먼저 좋은 文章이 없었기 때문이다. (中略)

새로 있을 文章作法이란,
첫째, 글을 짓는다는 것에 대립해서 말을 짓기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個人 本位의 文章作法이어야 할 것이다.

14) <문장>지는 문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태준의 「文章講話」외에 양주동의 「文章論」(1호), 김진섭의 「文章私談」(1호), 전영택의 「聖書와 文章」(3호), 유자후의 「文章論」(5호)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다.

셋째, 새로운 文章을 위한 作法이어야 한다. 생활 그 자체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다”¹⁵⁾

이상에서 이태준은 새로운 문장 작법의 핵심으로 典故의 탈피, 개성의 표현, 생활을 위한 문장, 글이 아닌 말짓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장정신은 개성의 표현을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소박성과 정작 그들이 표방한 고전정신과 역방향에 서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시된다.¹⁶⁾ 그러나 이러한 문장정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근대의 한 표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개성(자아)과 생활의 문제를 문장론에 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태준으로서는 이 새로운 산문정신을 통해 당대의 문화의 위기 의식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문장>지가 내세운 고전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의미있는 글쓰기를 위해서는 문장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가지 우리가 다음 논의를 위해 지적할 부분은, 이태준의 문장론이 정신의 차원에서 출발점을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치열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문장론의 출발이 추상적인 정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지닌 지향성이 여전히 어떤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문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대응이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에 이태준의 산문정신의 핵심이 놓여 있다.

2) 新 文化의 志向과 敎養精神 : <人文評論>

<人文評論>은 1939년 10월 창간호를 발행하고 1941년 4월의 16호까지 발행된 문예지이다. 이 문예지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비평적 정신을 주조로 삼고 있다. 최재서가 주관하고 김남천, 서인식, 이원조 등이 주로 참

15) 이태준, 「文章講話 (1)」, 『文章』 1 (1939.2), pp.180-187

16)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의 이해』(일지사, 1973), pp.274-275

여한 <인문평론>은 창작에 역점을 둔 <문장>과는 달리 평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호마다 10여 편 이상의 평문이 실려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창작보다는 평론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문평론>이 추구하는 바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향으로 요약된다.

<인문평론>지가 추구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향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의 문학 및 이론의 도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국의 문학 및 이론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의 필진이 문인인데서 오는 것이며 그 본질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 본질은 신체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 창조에 있다. 우리가 흔히 <인문평론>의 공과를 다루는 자리에서 친일적 색채를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문화창조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신체제에의 동조 때문이다. 이 성향은 <인문평론>의 창간사에 해당하는 다음 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世界의 情勢는 時時刻刻으로 變하고 獨波間에는 벌써 武力衝突이 發生하여 歐洲의 危機를 告하고 있다. 그러나 東洋에는 東洋으로서의 事態가 있고 東洋民族에겐 東洋民族으로서의 使命이 있다. 그것은 東洋新秩序의 建設이다. 支那를 歐羅巴적 桎梏으로부터 解放하여 東洋에 새로운 自主의 人 秩序를 建設함이다. 이리하여 必야호로 東洋에는 커다란 建設이 經營되면서 있다. 政治的 工作에 經濟的 再編制에 産業開發에 治水 灌溉에 交通 施設에 教育改善에 모든 人力과 物力이 놀랄만한 能力을 發揮하면서 新秩序 建設의 大目標을 向하여 일로 邁進하고 있다. 이때를 당하여 文學者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¹⁷⁾

이와 같은 선언에 이어 새로운 문화건설의 주체자로서의 문인의 역할이나 임무를 강조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다. 문화인으로서의 문인의 대사회적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장>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천적 행위의 방향에서는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있다. 즉,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의 건설이라는 당대의 지배적 경향

17) <人文評論> 1호, 1939.10, p.2.

에 호응하고 있다. 이는 문화의 논리에 대한 수용의 자세이다. 이를 기존 논의에서는 모더니티 지향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나¹⁸⁾ 실제 <인문평론>지에 실린 여러 평문들을 검토해 보면 모더니티라는 일관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라는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그 한 예로 김남천, 최재서 등이 주축이 되어 전개한 장편소설 논의나 외국문학의 소개는 우리 근대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항상 문제시되었던 근대와 서구의 동일시라는 논리의 또다른 표출양상에 해당한다.¹⁹⁾ 실제 그들의 논리는 당대의 사회에 면밀히 대응하는 새로운 소설이론을 상정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전환기의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서구의 이론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장르이론을 받아들여 보자는 쪽에 가깝다. 최재서의 「서사시·로만스·소설」이나 김남천의 「소설의 운명」이 ‘새로운 문화에의 공헌’이나 ‘유토피아 지향’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도 그 이론들이 지닌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문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적 토양과 거기에서 배태된 제 논의들을 당대의 문화 위기 의식의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교양정신’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인문평론>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건설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교양정신의 함양은 <문장>지가 내세운 고전정신으로의 회귀와 동일한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란 우리에게서 낯설은 것이지만 분명 필요한 것이기에 교양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양이 문화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기에 그것의 수용을 주장하는 논리 속에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 간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 교양론은 <인문평론> 2호에 특집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특집 중의 하나인 박치우의 「敎養의 現代의 意味」에서는 교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8)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pp.134-142

19) 한국의 신문학사를 이식문학사로 규정한 임화의 『新文學史』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되고 있다.

“요컨대 教養이란 언제나 새로운 價値를 率先 받아들이어 精神的 眼識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들의 靈魂으로 하여금 營養의 潤澤을 確保케 하는 넓고 또 풍부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確固한 중심만은 언제나 잃지 않는 그러한 性質의 精神財 내지 精神能力이라고 이렇게 規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教養이라는 것이 만약 이러한 것이라면 이것은 적어도 文化人으로서는 누구나 가져야 할 一種의 精神的 必須物 - 이를테면 糧食이다.”²⁰⁾

여기에서 제시된 교양에 대한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들로 되어 있어 그 뜻을 정확히 읽어 내기가 쉽지 않다. 교양에 대한 이러한 식의 이해는 이와 관련된 논의들 대부분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교양에 대한 태도만은 일정하다. 교양은 문화인에게 필수적이며 새로운 문화의 건설을 위해서는 교양을 쌓아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렇듯 <인문평론>지의 논의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를 위한 교양의 습득을 거의 강박관념에 가깝게 내세우고 있다. 이를 우리는 '교양정신'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의 문자행위를 제어하는 산문정신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3. 社會的 脈絡(social context)으로서의 散文精神과 글쓰기의 두 類型

1930년대 말기의 대표적인 문예지인 <文章>과 <人文評論>지에 나타난 산문정신을 살펴본 앞 장에 이어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산문정신이 당대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고가 한 시대의 정신사나 의식사, 이념사 등은 당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를 제어하는 하나의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으로 작용한다는 견해²¹⁾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서론

20) 朴致祐, 「教養의 現代的 意義」, <人文評論> 2호 (1939.11), p.31

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글쓰기를 창조적 주체의 개인적 행위로만 파악할 때 그 결과물은 우연적인 것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와 관련된 이차적 활동인 비평이나 분석 등은 그 의미가 축소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글쓰기에 접근할 때 개인 차원을 넘어서 어떠한 맥락들이 그것에 작용하는가를 살펴 보는 일은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원리들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연구체계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본다.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산문정신은 당대의 글쓰기 특히 두 문예지와 관련을 맺고 있는 문인들의 글쓰기를 제어하는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당대의 지배적 경향에 대해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맥락이며, 다른 한 쪽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맥락에 놓여 있다. 이 맥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우선적으로 대상의 선택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어떠한 대상을 선정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낼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 이후의 글쓰기의 양상은 그 대상의 속성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이제 그 양상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하는데 <문장>의 경우는 이태준을 통해, <인문평론>의 경우는 최재서와 임화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1) 完結된 對象과 說得的 글쓰기

이태준의 「古翫品과 生活」은 그의 대표적인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글이다. 이 글은 우리가 흔히 골동품이라 부르는 것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문장>지에 발표되었다. 이 글의 핵심은 골동품을 고완품이라 부르자는 것과 그것들이 지닌 현대적 해석을 발견하자는 데에 있다. 이것을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견주어 보면 우선 대상이 골동품인 것은 <문장>지가 선명하게 내건 고전정신의 한 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골동품이 지닌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내야 하며 그것은 생활과의 관련에서 찾

21) T. Todorov (trs. by Wlad Godzich), *Mikhail Bakhtin-The Dialogical Principle*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pp.41-59.

아야 한다고 본 것은 이태준이 내세운 문장론과도 연결된다. 문제는 이 두가지 성격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골동품의 세계는 완결된 세계라 할 수 있다. 그것에 어떤 침삭이나 수정이 가해지면 골동품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고전정신을 추구한 이병기나 그 후계자들이 동양적 세계관을 표상하는 대상을 철저히 자족적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심경만을 토로하는 식의 작품 세계를 형성한 것을 통해서도 이 골동품의 성격을 읽어 낼 수 있다. 골동품은 그것을 잘게 나누어 분석해 내는 일을 시도하지 않는 한 완상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되며 주체와 대상과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게 된다. 더군다나 골동품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기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태준이 골동품에 새롭게 접근한 것은 그 명칭에 불과하다.

“‘古’자는 秋史같은 이도 얼마나 즐기어 쓴 餘韻 그윽한 글자임에 반해 ‘骨’자란 얼마나 火葬場에서나 추릴 수 있는 것 같은 앙상한 죽엄의 글자인가! 古翫品 들이 ‘骨董’ ‘骨’字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生命感이 얼마나 剝奪을 당하는지 모를 것이다. 말이란 大衆의 所有라 任意로 고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될 수 있는대로 ‘骨董’ 대신 ‘古翫品’이라 쓰고 싶다.”²²⁾

‘골동품’ 대신 ‘고완품’이라 부르고자 함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자못 심정적이다. 글자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 근거로 설정되어 있다. 이태준이 문장론을 통해 제시한 것이 ‘생활적’인 ‘말짓기’임을 감안할 때 그 명명법은 생활적도 아니고 말짓기도 아닌 전통적 文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점은 “『酌酒賦詩相料理, 種花移石自殷勤』의 묘미에 빠져 버리고 남음이 없기가 쉬운 것이다”라는 구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가 과거의 문장작법 중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한

22) 李台俊, 「古翫品과 生活」, 『文章』 20 (1940.10), p.208

바 있는 典故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산문정신의 핵심으로 제시된 문장론이 실제 글쓰기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필자는 글쓰기의 대상이 지닌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태준이 완결성을 지닌 대상을 글쓰기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그의 지향성 때문이다. 문화의 위기 의식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고전정신을 내세운 <문장>지의 대표적 인물로 문장론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 보려 했지만 그의 문장론을 진행하면서 그는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言文一致와 實用精神을 추구하다 보니 시대적 일상성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은 곧 당대의 시대적 조류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에 해당한다. 「文章講話」의 뒷부분이 매우 사무적인 차원의 양식론에 머무르고 있으며 귀족적인 취향으로서의 문장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참고로 그의 「文章講話」의 마지막 장인 9장을 보면 「文章의 古典과 現代」라는 제목하에 「春香傳」, 「恨中錄」, 「仁顯王后傳」, 「祭針文」 등의 문장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구절로 그 끝을 맺고 있다.

“藝術家の 文章은 日常의 生活器具는 아니다. 創造하는 道具다. 言語가 미치지 못하는 대상의 核心을 집어내고야 말려는 恒時 矯矯不群하는 야심자다. 어찌 言語의 附屬物로, 生活의 器具로 自安할 것인가! 그러나 누구나 먼저는 言文一致 文章에 入學해야 한다. 그리고 文藝家가 되려면 이 言文一致 文章을 완전히 消化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²³⁾

문장이 일상의 생활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이르면 그가 문장강화를 처음 연재할 당시 보여 준 의식은 많이 퇴색하고 비실용성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 비실용성의 문장은 사실상 古典의 문장임을 바로 앞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산문성의 핵심인 문장론이 지니고 있는

23) 이태준, 『문장강화』(서음출판사, 1988), p.298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古翫品과 生活」이며 그 대상으로 그가 회귀한 고전의 세계와 일맥상통하는 골동품을 선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완결된 대상을 선택한 이상 글쓰기는 설득적인 글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특별히 설명해 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미학적인 세계로 끌고 들어갈 여지도 별로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고요함과 가까움에 沒入되는 것이다. 好古人들의 성격상 극도의 近視眼的의 일면이 생기기 쉬운 것도 이러한 연유다. 비인 접시요, 비인 瓶이다. 담긴 것은 떡이나 물이 아니라 靜寂과 虛無다. 그것은 이미 그릇이라기 보다 한 天地요 宇宙다. 남보기에는 한낱 破器片皿에 불과하나 그 主人에게 있어서는 無窮한 山河요 莊嚴한 伽藍일 수 있다. (중략)

靑年 知識人들이 陶磁器를 蒐集하는 것은, 古書籍을 수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玩賞이나 所有慾에 고치지 않고 美術品으로, 工藝品으로 정당한 現代的 解釋을 발견해서 고물 그것이 주검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美와 새로운 生命의 不死鳥가 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정말 古翫의 生活化가 있는 줄 안다.”²⁴⁾

·여기 인용된 부분은 글의 중간과 마지막에 해당한다. 화려한 수사와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현대적 발견의 요체가 무엇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골동품의 주인 즉, 필자에게 있어서의 골동품의 의미를 밝힌 다음 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靜寂과 虛無에서 天地와 宇宙를 거쳐 다시 山河와 伽藍으로 이르는 골동품의 세계는 객관적인 서술의 세계는 아니며 심정적인 차원의 세계다. 이 세계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작가의 의도가 설득적인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류의 글은 왜 그러한 대상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 대상의 속성에 따라 어떠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내용의 측면에서 분석과 이해가 이루어질 때는 정당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할 것

24) 「古翫品과 生活」, 앞의 책, p.209

이다. 이태준의 이 글이 과연 문학적 산문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일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하나의 문자행위의 결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화적 경향에 따른 산문정신의 형성과 대상의 설정, 글쓰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예로 삼을 수 있으면 된다.

2) 對象의 流動性과 說明的 글쓰기

<문장>지의 글쓰기의 대상이 이태준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결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인문평론>지가 추구하는 대상들은 추상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들이 주된 글쓰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정보에 해당하는 새로운 문화나 지식에 관한 것이다. <인문평론>지의 대표적인 글의 양식인 평문들은 거의 대부분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정보제시는 <인문평론>지가 새로운 문화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글들이 문제시되는 것은 이들 평문들이 기존의 평론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평론들은 하나의 작품이나 작가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해내는 작업이기에 논거와 자기 주장이 반드시 요청되었다. 또한 비평의 특성상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일종의 논리적이면서도 자기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문평론>지에 실려 있는 평문들의 대부분은 이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글쓰기에 해당한다. 다음의 글을 보자.

“여기서 文學을 生産하는 基礎와 다른 文化를 맹그러 내는 基礎와 共通함을 알 수 있다. 이 共通한 基礎가운데 아주 一般의인 必須物은 아는 것이다. 文學은 역시 作家가 알아서 독자에게 알리는 過程의 하나다. 알아서 알리는 過程은 곧 아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作家란 알아서 알리는 사람인 동시에 아는 사람이다. 아는 것은 무엇이고 間에 그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무엇이고 間에 그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그러나 아는 것의 對象, 따라서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물을 問題가 아니다.”²⁵⁾

이 인용문은 <인문평론> 2호의 '교양론' 특집에 실린 임화의 글 중 일부이다. 매우 건조하면서도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아는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다른 평론들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간명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논리적으로 서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임화뿐 아니라 평문을 쓰는 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문장들은 <인문평론>지가 추구하는 지향성에 대응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문평론>은 당대의 지배적 흐름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의 건설에 나설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지향점은 문화 일반에 대해 순방향에서 접근해 가는 작용이며 이를 글쓰기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주체의 선정이나 서술상의 전략에서 직접성과 수월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²⁶⁾ 즉, 글쓰기의 주체들이 지향하는 바와 당대 사회의 지배적 경향이 서로 동일한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고 쉽게 써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문장>지의 필자들이 직면한 상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들이 추구한 고전정신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점에서 간접적이고, 이에 당연한 결과로 복잡성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인문평론>지의 필자들이 글쓰기의 전략상 확보한 수월성과 직접성은 그들이 추구한 산문정신이 '교양정신'으로 귀결된 것과는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교양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형성 당시에는 일방적인 흐름 위에 놓이게 된다. 특히 당대와 같이 전혀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양의 함양이란 '移植'과 같은 현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문예지의 필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바였다. 이들 글쓰기의 주제들은 수용 주체들에 대해 매우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위상 관계의 형성은 글쓰기의 대상인 새로운 문화 즉, 정보들이 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데서도 연유한다. 즉, 교양으로 삼아야

25) 林 和, 「教養과 朝鮮文學」, 『人文評論』 2(1939.11), p.46.

26) Keith C. Pheby, *Interventions* (Maisonneuve Press, 1988), pp.73-90.

하는 하나의 정보들은 그 범주나 내용 영역이 이렇다 하게 규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의 자의에 따르기 마련이다. 만약 정보가 범위나 내용이 규정된 것이고 글쓰는 주체가 그것을 충분히 전달해 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수용 주체에 비해 위상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리는 언어의 일반적 속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그것이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화자가 상대방보다 많이 알거나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청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럴 경우 훨씬 수월한 발화가 가능한 것이다.²⁷⁾

새로운 문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막연히 서구의 문화적 산물들을 하나의 교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 아래 자신들이 아는 정도 내에서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기에 <인문평론>지의 필자들은 설명적 글쓰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양'은 이미 누구나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굳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성의 여부를 검증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글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착오나 일방적 지식 획득에서 오는 부정확한 지식의 전달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글을 써나가는 입장은 매우 당당하다. 논거를 드는 방식이나 진술해 가는 방식도 단정적이고 명쾌하다. 이는 정보라는 대상이 유동성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歐羅巴에 있어서도 科學은 19세기 전반까지는 아직 敎養化되지 못하였
다. 그 證據로선 自然主義 作家들의 作品이 당시 佛蘭西 社會에 일으킨 物
議를 엿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自然主義 小說이 당시의 敎養社會에
衝擊을 준 것은 그 悖德性에서보다도 차라리 그 專門的 용어에 있어서다.

27) T.P.Waldron, *Principles of language and mind* (Routledge & Kegan Paul, 1985), pp. 74-89

描寫되는 人物의 職業과 環境에 따라서 모든 細部描寫가 專門的 用語로써 — 보통 讀者로선 도저히 理解할 수 없는 用語로써 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유-고-는 「노 - 틀.담」에서 韓권의 完전한 建築學사전을 提供하였고 「바다의 일꾼들」에서는 海語辭典을 提供한 셈이었다. 그리고 발작크의 「비로트 - 皇帝」를 完전히 理解하려면 辯護士나 會計士가 되지 않어선 아니되고 즐라의 어떤 作品을 理解하려면 自己自身이 白丁이 되는 수밖에 없었고 讀者들은 歎息하였든 것이다.”²⁸⁾

이러한 글이 현대에 쓰여졌다면 즉, 이 내용에 대한 정보가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발표되었다면 필자는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정보의 부정확성은 물론 자신의 당당함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대 사회에서는 이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았던 터라 이 글쓰기는 유효한 것이며 의미있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 당대가 아니면 찾아 볼 수 없는 글쓰기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글쓰기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 현대적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한 사회의 지배적 경향이 어떠한 작용 과정을 거쳐 글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 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요인들이 군국주의 시대나 전체주의 시대와 같이 일관되게 사회 전체를 통어할 수 있는 기회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문평론>지가 주된 글쓰기의 양식으로 선택한 설명적 글쓰기는 그 대상인 정보가 한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인해 유동적인 것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완결된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수사를 동원해 설득적으로 글쓰기를 해야 했던 <문장>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남는 문제는 이들 평문들이 일반적인 논설류와 어떻게 변별되느냐 하는 의문과 이 글들을 문학적 산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설명해 내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를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8) 崔載瑞, 「教養의 精神」, 『人文評論』 2(1939.11), pp.25-26.

4. 결 론

한국 수필의 대표작의 하나로 잘 알려진 「나무」의 필자인 李敏河는 본고가 다룬 1930년대 말기에 문필활동을 한 문인이다. 이양하는 <인문평론>에 몇 편의 글을 발표하며 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그의 정신적 지향점은 <문장>지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나무」라는 수필이 지니는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는 <문장>지의 필자들과 같이 완결된 대상일 수 있는 자연을 취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접근하는 길은 사뭇 다르다. 최재서가 지속적으로 추구한 바 있는 유기체적 문학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구절로 대표되는 이 작품의 글쓰기는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두 가지 글쓰기와는 또다른 유형이다. 그 중간형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의 글쓰기는 우리 수필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讚」, 「-----頌」 등의 제목이 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수필들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수필에 접근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고정적이었다. 필자의 철학이나 인생관의 소산쯤으로 그 내용을 돌리고 수사적 기교를 분석해 내는 데 치중해 왔다. 본고가 의도했던 바는 이러한 류의 글들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과도 상통한다.

<참 고 문 헌>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일지사, 1978), pp.161-169
——, 『한국근대문학의 이해』(일지사, 1973), pp.274-275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 現代』編(白楊堂, 1947), p.254 ff
李庸周, 丘仁煥, 金恩典, 朴甲洙, 李相翊, 金大幸, 尹希苑, 「國語教育學 研究와 教育의 構造」, 『師大論叢』 46輯, 1993.6
이태수, 「학문 체계 안에서 인문학의 위치에 대한 고찰」, 소광희 외, 『현대의 학문체계』, 민음사, 1994.
- Art Berman, *From the New Criticism to Deconstruction*, Univ. of Illinois Press, 1988
- Gerard Granel, "Who Comes after the Subject ?" Eduardo Cadava etc.(ed), *Who Comes after the Subject ?*(Routledge, 1991)
- Ken Hirschkop (ed), *Bakhtin and Cultural Theory*, Manchester Univ. Press, 1989
- Keith C.Pheby, *Interventions* (Maisonneuve Press, 1988) pp.73-90
- T. Todorov (trs. by Wlad Godzich), *Mikhail Bakhtin - The Dialogical Principle*,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 T.P.Waldron, *Principles of language and mind*, Routledge & Kegan Paul, 1985.
- L.Goldman (정과리·송기형 역), 『숨은 신』 (인동, 1980), pp.23-24
- R.Williams (나영균 역), 『文化와 社會』 (이화여대 출판부, 1988), pp.12-19